

# 한·중 간판벤처들 베이징서 '자웅'

내달 16일 북경서 KAIST-칭화대 한중 하이테크 엑스포 2003 개최

‘한국 최고와 중국 최고 벤처들의 한판 승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공계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중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 칭화대가 양국 벤처기업간 교류를 통해 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단장 이용훈)은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북경시 조양구 국제회의중심에서 'KAIST-칭화대 한중 하이테크 EXPO 200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KAIST와 칭화대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처음으로 갖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 행사에는 대덕밸리 벤처기업 19개를 포함해 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와 미세정보시스템연구센터 등 6개 연구센터, 41개의 벤처기업들이 참가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널리 알리게 된다.

특히 참가기업 전시회와 한중 기업간 세미나, 양교 기술이전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행사기간동안 열려 양국의 '기술 전쟁터'를 방불케 할 예정이다. 또한 KAIST와 칭화대 소속의 연구센터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에 선 양교간 보유한 첨단기술을 선보임으로써 기술협력을 앞당기게 된다.

이밖에 중국 중관촌 벤처기업 20여개사가 참가해 양국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벤처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KAIST 신기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KAIST와 칭화대의 인적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양교는 물론 양국의 벤처기업들의 공동협력의 장으로써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간 다양한 협력행사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 대덕 신제품/신기술 ■

### 나노닉스, 2차전지용 나노분말소재 개발

대덕밸리 나노기술 전문 벤처기업 나노닉스(대표 최관영)는 가전제품 전원공급장치인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와 2차전지에 들어가는 나노 분말소재를 개발, 올 하반기부터 양산화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양산할 예정인 나노분말은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전세계에 독점 공급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전량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번에 개발된 나노분말소재는 기존 제품에 비해 저온의 온도에서 제조가 가능하며 제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원가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높은 결정성과 99.9%의 높은 순도의 나노 분말소재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 소재를 적용하면 광, 음파, 전자파 등의 흡수 및 산란 효과와 금속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용도에 맞게 함유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최관영 대표는 "양산체제 구축으로 국내 나노분말소재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나노분말소재는 응용 분야가 폭넓기 때문에 전자·화학재료 등 다른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